《闡義昭鑑諺解》의 異本 比較

鄭 承 詰

I. 머리말

W. 飜譯樣式:直譯斗 意譯

1. 書 誌

V. 댓 음 말

■. 表記·音韻

T. 머리말

《闡義昭鑑諺解》는 18세기의 景宗·英祖 兩代에 결처 일어난 老少黨爭의 결과 老論의 專制化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少論의 執權名分을 모조리 제거하고 老論의 執權義理를 闡明하기 위하여 編纂된《闡義昭鑑》을 諺解한 책이다. (1) 이 책에는 景宗 元年(1721) 延礽君(후에英祖)의 世弟册封과 代理聽政에 대한 老・少論 對立에서부터 이로 인한 辛壬士禍(1721~1722)와 少論의 執權, 英祖 即位로부터 英祖 4年(1728)의 戊申亂(李麟佐의 亂)・英祖 31年(1755)의 羅州 掛書의 變(尹志의 亂)과 乙亥獄事를 통한 老論의 執權 등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闡義昭鑑諺解》는 크게 나누어 木板本과 筆寫本 두 異本이 現傳하는데 本稿는 두 異本 간에 나타나는 言語事實의 差異를 記述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먼저 『章에서는《闡義昭鑑諺解》에 관련된 歷史的 記錄을 살펴보며 奎章閣 所藏 異本들에 대한 形態書誌學的 事項 들을 記述해 줌으로써 各 文獻에 대한 文獻資料的 性格을 究明하고, 『章에서는 木板本・筆寫本 두 異本 간에 나타나는 表記・音韻上의 差異를, 『章에서는 두 異本이 보이는 飜譯 様式上의 差異를 記述해 줌으로써 이들 文獻이 刊行되었던 當時의 言語事實에 대한 多角的이해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書 誌

《闡義昭鑑諺解》는 英祖 31年(1755) 11月에 漢文本《闡義昭鑑》이 完成된(2) 직후부터 元景

필자: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助教

^{(1) 《}闡義昭鑑》의 歷史的 意義에 대한 논의는 李銀順, 1986 〈18세기 老論 一黨專制의 成立過程一辛 壬士禍와 闡義昭鑑의 論理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10 참조.

⁽²⁾ 漢文本《闡義昭鑑》은 承政院日記의 記錄을 토대로 하여 推論해 볼 때 元景夏가 중심이 되어 英祖 31年 11月에 纂修, 그해 12月까지는 刊出된 것으로 보인다.

趙榮國曰 闡義昭鑑刊出後 非但曾經侍從均播八路可矣 上曰好矣 頒布可也 上曰 闡義昭鑑 慈聖封

夏, 申晚 두 사람이 諺解하고 元仁孫 등 6人과 함께 校正에 참여하여 그해 12月에 完成하였다.

上命諸郎聽 輪讀昭鑑總論 讀訖 上曰 以諺文飜釋似難矣 景夏曰 在外時已詳量 以本册釋之之外 無他 道矣 上曰 飜諺後 納于政院 仍納于大殿可也 晚曰 今此飜諺時 與元景夏 依前會于掌樂院 同爲校正矣 上曰 依爲 而郞應元仁孫等六人 亦同爲校正可也(英祖 31年 11月 26日)

이는 그해 12月까지는 完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完成된 것은 筆寫本이었던 듯하다. 그 것은 이에 대한 印刊記錄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推測된다.

闡義昭鑑該册 今已進上本 都監已罷 儀軌設廳爲有置 儀軌廳勿禁帖(3) 則施行 而纂修廳勿禁帖 勿施爲 乎矣 萬一運晚 甘罪不辭(闡義昭鑑 纂修廳儀軌, 英祖 31年 12月 5日 甘結秩)(4)

木板本은 英祖 32年(1756) 6月《訓書諺解》의 印出作業과 동시에 徐命膺,鄭存謙에 의하여 刊印役이 시작되었으며 같은해 7月에는 刊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日記에 이에 대한 記錄이 나타난다.

洪鳳漢曰 訓書諺解印出似好矣 且闡義昭鑑諺解 不可不同爲印出矣 ······ 尚魯曰 一儒臣 獨當此役似難 使吏判照檢 儒臣不可不加出矣 上曰 鄭存謙可合此事矣 (英祖 32年 6月 16日)

上曰 承旨退出 徐命膺 鄭存謙 若到院昭鑑該解 載板與否及訓書印出多少 聞啓 昭鑑印出日子(英祖 32 年 6月 28日) 上曰 昭鑑印役 何以爲之耶 命膺曰 式例役訖後 當始之矣 上曰 翻諺已訖耶 命膺曰 舊諺

進一件 進上三件 世子宮進獻一件 五處史庫 政府 樞府 六曺 政院 弘文館 藝文館 传講院 三都 八道 及宗親儀資二品以上 文臣實職 軍卿侍從以上 武臣曾經關帥以上 刊頒事分付(英祖 31年 乙亥11月 5日)

又傳曰 雖蔭官堂上以上實職及史官會經纂修郎聽 闡義昭鑑 一體頒布 又傳回 明日三使臣入侍時昭鑑看印校正兩堂上 兵判 一體入侍 上曰 册名極好 文字極恠異 千萬古豈有此等恠異文字乎(英祖31年11月6日)

知事元景夏 書曰 伏以巨伏奉大朝特教 憑當闡義昭鑑纂修之任 承命以來 夙夜惶惧恐職事不效 今幸篡役告訖(英祖 31年 11月 7日)

風漢日 **閩義昭鑑** 既已頒賜於諸臣 則太學賢閑 先不可不一軆頒賜矣 上口 依爲之 (英祖 31年 12 目 20日)

이는 "文字極恠異"하여 이듬해 6月 이후에 實錄字의 活字本으로 다시 刊印하게 된다.

聞啓 昭鑑印出日子 雖稽緩 鑄字 勿爲加鑄之意分付可也(英祖 32年 6月 28日)

上曰 昭鑑印役 何以爲之耶 命膺曰 式例役訖後 當始之矣……命膺曰 活字有實錄字 衛夫人字 以何字用之乎 上曰 實錄字似好矣 上命承旨書之曰 今番宫園式例中刊印者 其板本盛於木櫃藏於彰義 宫(英祖 32年 6月 30日)

그런테 中央에서의 이러한 刊印作業과 동시에 地方에서도 飜刻作業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英祖 31年의 板本을 기초로 하여 刊印作業을 한 것으로 보인다. '丙子八月日廣州府刊印'이란 刊記가 있는 漢文本《闡義昭鑑》(奎 1545)은 廣州府에서 刊印된 책이다.

又命書之曰 更思之 昭鑑元本 八道三都 旣有賜本 其在懵費之道 不可復印 分付七道南漢 以其本 翻刻 其中不可不摸者摸刻 (英祖 32年 6月 30日)

- (3) '勿禁帖'은 관아에서 특별히 허락하여 준다는 뜻을 적은 文書로 일종의 '허가증명서'.
- (4) '甘結'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내리는 公文.

校書館官員科昌鳳入侍進伏 上曰 昭鑑諺解 何當畢役 而今幾刊印耶 昌鳳曰 分作三卷刊印 而合為三百餘張矣 初二卷則已爲刊印 而末卷則五十張姑未刊印矣 刊印則似於數三百間華役矣 上曰 斯遼盡為刊印一秩先爲粧績以入可也 (英國 32年 7月 19日)⁽⁶⁾

이런 과정을 거쳐 芸閣에서 刊印된 木板本《闡義昭鑑諺解》는 七道로 보내어 각 道에서 飜刻, 印出하게 하였다. '丙子閏九月日黃海監營開刊'이란 刊記가 있는《闡義昭鑑諺解》木板本 (奎 5437)은 黃海監營에서 飜刻된 책이다. 承政院日記의 記錄을 통하여 집작해 볼 수 있다.

尚魯曰 不可不俱出刊印 諺解印板 使八道印出似好矣 上曰 昭鑑解出 豈不張大耶 鳳漢曰 使遇夫遇婦 皆能明知義理之道 莫如詳出解本矣……上曰……又命承旨 書之曰 闡義昭鑑具諺解 令芸閣印八本 其中七本京畿外下七道 其令翻刻 一本下送南漢 一艘擊行 而刊印後 其令各一件封進(英祖 32年 6月 16日)

《闡義昭鑑諺解》는 木板本과 筆寫本의 두 종류가 있는데 奎章閣 圖書에는 圖書番號 奎1118, 1119, 3233, 5437의 네 種의 木板本과 奎2214의 한 種의 筆寫本이 所藏되어 있다. 零本으로 卷四만 전하는 奎3233의 木板本을 제외하고 모두 4卷 4册으로 전한다. 네 種의 木板本중에 板式과 印刷狀態로 보아 奎1118의 木板本이 原刊本인 듯하며 다른 세 種은 모두 이의 獨刻本등이다. 木板本 四種의 形態書誌學的 概要는 다음과 같다.

圖書番號	半郭의 크기	王 郭
奎 1118	25.7×17.1 (유 Ia) 25.7×17.2 (四 Ia)	四周雙邊
奎 1119	25.8×17.1 (유 1a) 24.6×16.9 (四 1a)	四周雙邊 下雙邊
奎 5437	25.5×17.1 (유 1a) 25.5×17.2 (四 1a)	四周雙邊
奎 3233	25.2×17.1 (四 1a)	上下雙邊

이들의 板心書名은 '闡義昭鑑謎解'이며 魚尾는 上下二葉花紋魚尾, 行格은 有界 10行 18字 註雙行으로 네 種 모두 동일하다. 奎5437의 木板本만이 '丙子閏九月日黃海監營開刊'이란 刊記가 있다.

木板本 네 種의 飜譯은 완전히 동일하나 表記上으로 약간의 差異를 보인다. 참고로 卷四

⁽⁵⁾ 위의 英祖 32年 6月의 記錄들에 의하면《闡義昭鑑諺解》筆寫本을 토대로 徐命膺이 木板本을 纂修하였고 鄭存謙은 단지 木板本의 刊印에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6月 30日의 記錄에서 '舊諺解'는 元景夏, 申晚 등이 纂修한 筆寫本인 듯하다.

⁽⁶⁾ 이 記錄에서 '合爲三百餘張'이라 했으나 現傳하는《闡義昭鑑證解》는 筆寫本이 227張, 木板本이 284張이다. 또한 '刊印則似於數三日間畢役矣'라 했으나 刊印이 되었다는 그 이후의 記錄은 발견하지 못했다.

에서 네 種의 異本이 差異를 보이는 부분을 제시한다. (7)

圖書番號	奎1118	李1119	奎3233	奎5437
長 次	走1116	至1113	至3233	主0407
2a	귀향호물	귀향호물	귀향호물	귀향호물
2b	동심홀다	동심홀다	동심홀다	동심홀다
3Ь	世目	耳 目	브 터	브티
6b	셔울	셔울	셔울	셔울
7a	양주된재	양주된재	양조된제	· 양주된재
	क्ष	후되	रूं प्र	इं प्र
8a	샹호 아	샹후여	상투여	샹후여
	시세	시세	시체	시세
8b	작처 한다	작쳐하다	** 持市다	작쳐 한다
9b	못 한 야	못했야	못한야	못한야
10b	무 움을	무움을	무용	단 옵 윤
12a	불녀	블네	불네	블네
13a	모의홀	모의호	모의호	모의홀
16a	여리며단	석러디단	퍼러디단	서러디단
	신아 이녓노이다	신이 아녓느이다	신이 아녓는이다	신이 아녓는이다
	닐너노라	닐넛노라	닐녓노라	닐넛노라
	아니혼다	아니혼다	아니혼다	야니혼다
17a	방의	방외	방의	방의
	니로되	니로듸	니로되	니로되
17b	낙양	나 양	낙양	낙양
	날드려	날두려	날두려	날드리
18a	역당네와	역당네와	역당네와	역당네와
18b		손조	손주	· 손주
	나리한야	나라하야	나리호아	나리 현야
20b	아진들을	아전물훈	아전물홀	아전물흔
21a	더브러	터브러	더브리	터브리
23a	목미야	무미야	목미아	무미야
23b	외낙이	티나이	막낙이	당[나이
24a	호닉니	호누니	T 는니	サトリ
	니른러	니루리	니른리	니르러
24b	오래	오래	흐레	오래
27b	혼가디로	· 한가디로	혼가디로	혼가디로
29a	삼든	삼는	삼든	삼든
	· · · · · · · · · · · · · · · · · · ·	장추	장치	· · · · · · · · · · · · · · · · · · ·
31a	연과쉬	연과쉐	연과쉬	연과쉬

⁽⁷⁾ 아래 表에서 '불너(12a), 숀조(18b), 호는너(24a), 삼는(29a)' 등의 例들은 네 種의 板本이 각 독립적인 地位를 가진 覆刻本이었을 가능성을 暗示해 준다. 전하지는 않지만 原刊本이 따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 또 네 種의 板本에는 누군가에 의해 붓으로 可筆한 부분이 있는데 弘文閣 影印本의 底本인 木板本(奎 1118)도 역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엇디 됴타 아니호리오(四2b)'에서 '타'는 刊印 當時에 '타'였을 것으로 집작되는데 '타'에 加筆이 이루어져 있다. 다른 木板本에는 모두 '됴타'로 나타난다.

圖書番號	奎1118	奎1119	奎3233	奎5437
1次			<u> </u>	-E.0701
33b	티으디	더으디	더으디	더으디
38a	더보러	더보러	더보러	더브러
39b	이믜	이믜	이민	이믜
43b	하나혼	市计高	학나혼	すけを
44a	이믜	이믜	이외	이믜
	톄결	메결	테결	톄결
47b	시관이	시판이	시관이	시관이
48b	감회	감히	감히	감히
50b	우홀	우홀	우홀	우홀
53a	म्] ज]	비예	મે બી	휘에
	당연과혜	명연과혜	당연과해	당연과혜
	원망호야	원망한야	원망호야	원망층야
53b	흉셔	·황-샤	흥서	흉셔
	공스학되	공스학되	공스专되	공소한다
54a	공스한터	공신호되	공스학대	공스한터
54b	. 헤	혜	혜	혜
55b	샹언	쟝인	상언	샹언
	아돌	아물	아돌	아ઢ
56a	면지	편지	· 편지	펀지
56b	이에	이에	0 0	이에
57a	격亽오나	적신오나	직 수 오 다	격스오나
57b	스스로	스人로	스스로	스스로
	계적의	계적의	계적의	계적의
58a	눌드리	눌드려	눌드려	눌드러
	더브리	더브러	디브리	더브러
58b	위문호여	위군학여	위문호여	위문호여
000	경상을	경상을	경삼을	경상을
59a	음참 호니	음잠학니	음참호니	음참학니
59b	더브러	머브러	더브리	터브러
60a	일홈이라	인휴이 더	인홈이다	일홈이라
61b	글급이다 극경 방형	- 구경 방형	극정방형	극정방형
OID	두시역 눌	구경 등 등 투시역률	투시역 늍	투시역뉼
62b	게시되는 연고로	가시크판 연고로	연고로	언고로
63a	언교도 아닛노라	아닛노라	이닛노라	아닛노라
1	아딧도다 참예호야	아	참예 호야	
64a		į.	!	참예 ㅎ아
65b	マ투라	マ長卦	구투화	マ투라
:	괴신호야	퍼신호야	피신호야	퍼신호야
68b	정형한다	경형하나	경형한다	경형학다
70a	ń Z	点 B	म् है	立名
71b	흉언으로	흉언으로	흉언으로	흥인으로
72a	문무의	문무의	문무의	문복의
74a	<u>한</u> 을	말을	말을	말을
77a	몽되	몽되	몽되	몽되

圖書番號 張 次	奎1118	奎1119	奎3233	奎5437
77b	불의	불의	불의	불의
79b	역호외	역호의	역호의	역호의
80a	계적을	계적을	계적을	제적을
	경의예	경의예	경의에	경의예
80b	아리	이 티	0)-2)	하루
	이믜	이믜	이미	이의
82b	만코	만코	반코	만고
83a	경과	경과	경과	경파
83b	민면이제	민면역제	민면억제	민면억제

한편 筆寫本은 木板本과 翻譯上의 差異를 보이며 體裁 또한 相異하다. 黃海監營의 覆刻本(奎5437)도 다른 木板本과 體裁를 달리한다.

册數	筆 寫 本 (奎 2214)	木 板 本 (奎 1118, 1119)	木 板 本 (奎 5437)
~	슈셔비답 (1張) ⁽⁸⁾ 어제유찬슈제신 (4張) 뉸음 (3張) 진천의쇼감차조 (4張) 진천의쇼감전 (10張) ⁽⁸⁾ 천의쇼감범네 (2張) 천의 쇼감권지일상 (43張)	어제유찬슈계신 (5張) 뉸음 (4張) 진천의쇼감차주 (7張) 진천의쇼감천 (8張) 천의쇼감범내 (2張) 천의쇼감범내 (4張)	어제유찬슈계신 (5張) 뉸음 (4張) 전천의쇼감차주 (7張) 진천의쇼감전 (8張) 천의쇼감발 (4張)
اد خواهد المحافظ المحا المحافظ المحافظ	천의쇼감권지일하 (15張) 천의쇼감권지이 (52張)	천의쇼감언히권지일(76張)	천의쇼감범네 (2張) 천의쇼감언히권지일 (76張)
ton and double women	천의쇼감권지삼 (17張) 천의쇼감권지수 (37張)	천의쇼감언히권지이 (71張) 천의쇼감언히권지삼 (22張)	천의쇼감언히권지이 (71張) 천의쇼감언히권지삼 (22張)
pu	천의쇼감권지스하 (33張) 천의쇼감발 (3張) 봉교찬슈제신 (3張)(10)	천의쇼감언히권지스 (85張)	천의쇼감언히권지스 (85張)

筆寫本의 卷之—에는 景宗 元年(辛丑, 1721)의 사건과 景宗 2年(壬寅)의 사건이 上, 下卷으로 나뉘어 記錄되어 있고 卷之四에는 英祖 31年(乙亥) 2月~4月의 獄事와 5月~7月의 獄事가 上, 下卷으로 나뉘어 記錄되어 있으나 木板本에는 이들이 각각 卷之—, 卷之四로

⁽⁸⁾ 筆寫本에는 '슈서비담'이 독립되어 있으나 木板本에는 '진천의쇼감차조(6b)'에 포함되어 나타 난다.

⁽⁹⁾ 筆寫本의 '진천의쇼감전'에는 漢文 原文에 대한 한글 轉寫가 한글 口訣과 함께 실려 있다.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불 때 木板本보다 筆寫本이 더 張數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¹⁰⁾ 筆寫本에는 漢文本《閩義昭鑑》의 奉教纂修諸臣 39人의 명단이 그대로 실려 있다. 아들은 診解 本보다도 漢文本《閩義昭鑑》의 纂修에 관여한 사람들로 보인다.

국여 있다. 이는 筆寫本이 漢文本《闡義阳鑑》을 直譯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筆寫本《闡義昭鑑諺解》의 體裁가 漢文本《闡義昭鑑》의 體裁와 동일하다는 점에서推測해 볼 수 있다. (11)

Ⅱ.表記・音韻

木板本은 筆寫本에 비하여 더 정리된 모습을 지니므로 變異를 많이 보이는 筆寫本보다 훨씬 더 固定的이며 保守的인 表記를 보이게 된다. 이는 本稿가 다루는 《闡義四鑑證解》에서 확인되는바, 한 原典에 대한 두 飜譯인 木板本과 筆寫本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形態素를 構成하는 音素의 變異差는 그러한 점에 기인한 表記의 差異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더 많은 保守的 表記를 보여준다든지 이와 평행하게 筆寫本이 改新的 表記를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두 異本이 반영하고 있는 共時的 音韻規則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1. 終聲의 表記:連綴과 分綴

近代國語의 表記法은 音素的 原理에 기초한 中世國語의 連綴表記에서 形態音素的 原理가 근간을 이루는 現代國語의 分級表記로 옮아가는 過渡期的 性格을 지닌다. 따라서 近代國語에는 連綴이나 分級表記뿐 아니라 連綴에서 分級로 옮아가는 過渡期的인 중간적 表記가 등장하게 되는바 그것이 바로 重綴과 再音素化 表記이다. 이들 네 가지 表記原則이 語彙마다 혼란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세밀하게 資料를 관찰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향을 집작할 수 있다. 이는 連綴에서 分級로 넘어가는 過渡期的인 혼란과 그 속에서 나름대로 表記原則을 정립하려 한 表記者의 表記意識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近代國語 특히 18세기 國語의 表記法은 語幹과 語尾를 구분하여 表記하려는 경향의 深化를 보여준다. (12) 18세기 國語의 表記가 이와 같은 表記者의 表記意識이 반영된 것인 만큼이에 대한 관찰은 다음 두 層位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는 形態論의 문제이고 다른하나는 音韻論의 문제이다. 前者는 活用形의 表記와 曲用形의 表記를 구분해야 할 뿐 아니라 形態素 境界에서의 表記와 形態素 內部에서의 表記를 구분하는 문제이고 後者는 表記法의 變化와 音韻構造의 變化와의 관련을 고려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구분은 近代國語 表記法에 대한 多角的 이해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¹¹⁾ 筆寫本(奎 2214)에 正祖가 王世孫으로 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出齋'라는 印草이 적히 있다는 등의 이유로 洪允朽,〈闡義昭鑑諺解 解題〉弘文閣(1984)에는 이것이 英祖 31年 12月에 進上한 諺解本의 正書本이라 하였다. 하지만 분명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듯하다. 筆寫本에 나타나는 言語事實로 보아 좀더 後代의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¹²⁾ 郭忠求, 1980〈18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研究〉《國語研究》43; 李翊燮, 1985〈近代韓國語文獻의 表記法研究 一特司 分綴表記의 發達을 中心으로一〉《朝鮮學報》114 참조.

18세기 國語에서 語幹과 語尾를 分離하여 表記하려는 경향의 深化는 閉音節 語幹의 分級 表記의 擴大로 나타났다. 두 異本에서도 分級表記 擴大 경향이 나타나는데 體言과 用言을 나누어 記述하면서 木板本과 筆寫本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比較한다.

- (1) 녹이(木유 1b, 寫유 1a) 혼을(木四 66b, 寫四下 17b) 찰은(木二 58b, 寫二 42b) 일홈은(木四 47b, 寫四下 1a) 나라법을(木눈 4a, 寫눈 3b)(13)
- (2) 벗이(木三 1b, 寫三 1b) 벗으로(木四 20a) 失音(木二 68a, 寫二 49b)(14)
- (3) 임의(木二 59a, 寫二 42b) 금음적(木二 49a) 결을(木一 11b, 寫一上 9a, 遑)
- (1), (2)에 제시된 것처럼 두 異本에서 'ㄱ, ㄴ, ㄷ, ㅁ, ㅂ, ㅇ' 등의 七終聲으로 끝나는 體官은 원칙적으로 分綴된다. (15) 이 分級의 경향은 (3)처럼 形態素 內部에까지 擴大되어 적용되기도 하였다.
 - (4) 므어스로써(木차 4b) 노르슬(木四 60b) 사오나온 거슬(寫二 15b) 나라홀(木四 53a, 寫四下 5b) 잡시(木四 35b, 寫四 28a) 낙슬(木四 40a, 寫四 31b)
 - (5) 인성 호오시물(木三 la) 죽이미(木一 15a) 막으미(寫차 3b) 알고져 홈은(寫三 15b)(16)

七終聲 이외의 子音을 末音으로 가지는 體言 중 '人'末音, 'ㅎ'末音, ⁽¹⁷⁾ 子音群 末音 體言은 (4)에서 보여주는 대로 連綴된다. ⁽¹⁸⁾ [+asp.]子音 즉 激音 末音 體言은 連綴이나 分綴을 따르지 않으며 後述할 重綴이나 再音素化 表記를 따른다. 한편 (5)는 動名詞形 語尾 '-음'은 ⁽¹⁹⁾ 連綴됨을 원칙으로 하나 筆寫本에서는 分綴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體言 語幹의 曲用과 달리 用言 語幹의 活用에서는 일반적으로 連綴表記가 보인다.

- (6) 저근(木二 29b, 寫一下 9b) 어른(木유 6a) 어디(寫一上 15b) 아라(木二 43b) 사라(寫四 6b) 나흔(木전 3a, 寫一上 24a) 조마(木二 17a, 寫二 12b) 버스려(木二 38b, 寫二 27b) 꾸저춘디라 (木四 16b) 미차(寫一上 40b) 조초미오(木三 4b) 조츠니(寫전 6b) 비와타(木三 6a, 吐) 비아타(寫三 4b) 더퍼(木一 61a, 寫一下 3a) 노홀(木二 39b, 寫二 28a) 만하(木四 18a, 寫四 14b) 안차(木一 4a, 寫一上 3a) 달흐나(木전 7b) 일하(寫一上 13b) 불근(木三 16b) 불그시므로써(寫 一上 9a) 영소니(木유 2a) 영소미(寫발 1a)
- (7) 남은(木눈 2a, 寫눈 2a) 삼으나(木三 5a) 삼아(寫二 33b) 축으되(木三 14a) 박으미(寫차 3b)

^{(13) &#}x27;o' 末音의 경우는 물론 分綴된다 : 형이 (木四 76b, 寫四下 26a).

^{(14) &#}x27;벗즈로 (寫四 16a) 矢제 (寫四下 18a)'는 '벗, 矢'이 '木' 末音 體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게 한다. '뜻들 (寫四下 16a)'은 '듯'이 'ㄷ' 末音 體言임을 보여준다.

^{(15) &#}x27;비야믜 혜(木二 69b)'는 例外이다: 비암의 혜(寫二 50b).

⁽¹⁶⁾ 아주 드물지만 木板本에서도 分綴의 例가 보인다:이러홈을(木- 4b) 결괘홈이(木二 21b).

^{(17) &#}x27;ō' 末音 體言의 존재는 의심스럽다: 길의(木四 la) 김희셔(木四 7a).

^{(18) &#}x27;ㅈ' 末音 體言은 두 異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例는 'ㅈ'末音 體言도 連綴을 따 랐음을 示唆해 준다: 뜨치 (寫三 17a, 情).

⁽¹⁹⁾ 李翙燮, 前揭論文 p.25 참조.

- (8) 알아(木二 71a) 호아(寫전 5a) 베플엇고(寫전 6a)
- (9) 불일(木四 4b, 寫四 3b, 使) 날은지(寫유 2b, 謂) 일언(寫四 9b, 此) 임의(木一 27b, 寫一上 21a, 既) 움측여(木三 2a, 寫三 1b)

(6)은 두 異本에서 모든 閉音節 語幹이 活用할 때에 連綴表記됨을 보여주고(20) (7)은 語幹末音이 'ㄱ,ㅂ,ㅁ'일 때에 分綴됨을 보여준다. 18세기에 用言의 語幹末音 'ㄱ,ㅂ,ㅁ'은 거의 分綴表記가 일반화되어 있는데(21) 이는 이들 末子音들의 音韻論的 性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즉 이들은 [+grave]의 資質을 공유하는바 表記者들이 [Grave] 資質에 대한 인식을 表記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2) (8)은 'ㄹ'末音 語幹의 경우인데 木板本에 미해 筆寫本이 더 分綴의 경향이 강하다. (9)에서 보는 대로 形態素 內部에서도역시 音節 頭子音이 [+grave] 子音이나 'ㄹ'일 때 分綴되는 수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이로써 보면 두 異本에서 分綴과 관련된 音韻資質은 [Grave]와 [Sonorant]이며 分綴에 대한 이 資質의 관여 정도에 있어서도 筆寫本이 木板本보다 더욱 改新的이라 할 수 있다.

分級은 形態素 境界에서 語幹形態를 고정시키려는 意識의 表現이다. 다시 말하면 分級은 語尾의 環境에 따라 語幹이 모습을 달리 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表記法인 것이다. 하 지만 終聲表記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등의 7字만을 사용한다는 七終聲法과'⁽²³⁾ 傳統的 表記法인 連綴의 音素的 原理에서 완전히 자유로을 수 없었던 近代國語 表記者들은 그 중 간적 段階로서 七終聲法 아래에서 語幹形態를 고정시키면서 그 語幹의 異形態를 表記上에 반영해 주는 重綴表記를 사용하게 되었다.

- (10) 누물를(寫차 3b)(24) 由含量(寫四下 31a) 첫시(寫전 5a) 노릇슬(寫四下 12a)
- (11) 英号(寫四下 16a) 英지(寫三 16b)
- (12) 文志로(木유 5b) 文刘(寫命 1a) 贝志로州(木三 18b, 寫三 14b) 견目(木二 26b) 견目(寫一上

⁽²⁰⁾ 두 異本에서 'ㄴ' 末音 用言 語幹은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例을 통해 分綴의 경향을 띠었음을 推論해 볼 수 있다 : 엇더호이완더(木一 12a) 곳툰이 이시리오(寫三 4b). 한편 'ㅇ, ㅋ'末音 用言 語幹은 존재하지 않는다.

⁽²¹⁾ 金重鎭, 1986 〈近代國語 表記法 研究〉圓光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84. 筆寫本의 정우 심지어 '리' 子育群 末音 語幹이 分綴表記된 例가 보인다: 붉으시매(二 39b).

⁽²²⁾ 이는 '서' 末音 語幹의 再構造化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편 같은 自然部類에 속하는 '고' 末音 語幹은 連綴보다는 再音素化 表記가 압도적이다(後述).

⁽²³⁾ 七終聲法은 音節末 'ㄷ'과 'ᄉ'의 中和라는 音韻變化가 表記法에 反射되어 이루어졌다. 中世國 語 八終聲에서 'ㄷ, ᄉ'의 'ㄷ'으로의 中和라는 音韻變化의 完成에 의하여 七終聲이 成立된 후 表記上으로는 그 音韻變化의 방향과는 相反되는 樣相 즉 音節末에서 'ᄉ'으로의 統一을 보이게 된 것이다. 七終聲法의 成立과 發達 그리고 그 意味에 대한 자세한 論議는 金完鎮, 1976〈老乞大의 診解에 대한 比較研究〉韓國研究院 pp.100~122 참조.

⁽²⁴⁾ 近代國語에서 重綴의 '忠' 表記의 유사한 語中 '忠' 表記는 前者의 두 '忠'은 發音과는 다른 表記上의 기교로서 '라' 表記를 보이지 않는 데에 비해 後者는 두 '忠'이 發音되는 것으로 보이다 '라'과 混記를 보인다. '라' 表記는 이 時期의 소위 '라'의 頭音法則이 音節單位로 적용되었음을 인식한 데에서 나타난 表記인 듯하다. 다음 例는 示唆的이다:인한(木차 3a, 人倫) 의 논호면(木工 69b, 寫工 50b, 議論) 물기불(寫전 6a) 물기불(木전 5a),

18b) (25)

- (10),(11)은 [-asp.] 子音 末音 語幹의 重綴表記이며 (12)는 [+asp.] 子音 즉 豫音 末音 語幹의 重綴表記이다. 前者는 筆寫本에만 출현하므로 木板本에서 體言의 重綴은 豫音 末音 語幹에 한해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3)은 體言의 形態素 內部에서 나타나는 重綴表記이다.
 - (14) 릿초면(木二 39a) 릿츠면(寫二 28a) 文토더라(木유 4b) 文본지라(寫유 3b) 비홧타니(木四 39a) 미얏타니(寫四 30b)(26)
 - (15) 낫다난(木발 1b) 낫다나오샤(寫차 2a) 압품이(寫전 3a)

用言 活用에서의 重綴은 體言보다 활발하지 못하며 (14)에서 보는 것처럼 그 환경도 激音末音 語幹에 한정된다. (14)는 形態素 境界에서, (15)는 形態素 內部에서 重綴을 보이는 例들이다. 이를 앞선 例 (11)의 '뜻지'와 관련지어 볼 때 적어도 形態素 境界에서의 重級表記는 音聲的 要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밋디(木-68b) 굿고(寫-15a) 비왓고(木유 5a)'와 대비하여 語幹을 '밋-, 굿-, 비왓-'으로 고정시키면서 母音語尾 앞에서 실현되는 異形態를 表記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2)~(15)에서 보는 대로 두 異本의 重級表記로 나타나는 激音은 원칙적으로 [-grave]子音인 '굿, ㅌ'에 한정된다. 한편 [+grave] 激音은 後述하는 再音素化 表記를 대체로 따른다. 따라서 18세기의 母音 사이激音 表記는 [-grave] 漱音은 重綴로, [+grave]激音은 再音素化 表記로 주로 나타나는바이는 前述한 分級表記와 마찬가지로 音韻構造上의 變化로 인하여 表記者의 [Grave] 資質에 대한 認識이 表記法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27)

- (16) 납하지(木四 9b, 寫四 7b, 葉) 압하지(木유 3a) 안화(寫二 9a)
- (17) 旨喜(木三 1b, 寫三 1b) 집前(木三 3a, 寫三 2b)
- (16), (17)에서 보는 바처럼 [+grave]의 激音인 '고'末音 語幹은 주로 再音素化 表記를 보인다. ⁽²⁸⁾ 이는 激音化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激音化는 'ㅎ+子膏'의 激音化와 '子音+

^{(25) &#}x27;겻희'(寫二 19b)도 1例 나타난다.

⁽²⁶⁾ 金重鎭, 前掲書, pp.64~72에 의하면 'ㅍ' 末音 語幹은 17세기에는 'ㄸ'과 '晻'으로, 18세기에는 'ㄸ'으로 주로 表記되더 'ㅋ'末音 語幹은 17세기에는 '뭐, ኈ, ㅋ'으로 나타나다가 18, 19세기에 'ኈ'表記만 나타난다. '얽키고(寫전 5b), 집피(寫三 16a)'는 17세기 表記의 잔재이다. 모두 筆寫本의 例이며 派生語 內部의 경우이다.

^{(27) 18}세기의 소수 例인 '것회, 얽키고, 집회, 압품이' 등은 이에 대한 例外이다. 어들이 筆寫本에 만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데 어는 筆寫本이 改新的 表記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 保守的인 表記를 보여주기도 함을 말해 준다.

^{(28) &#}x27;ㅋ' 末音 語幹은 두 異本에 존재하지 않으나 鄭允子, 1990 〈近代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音素論的 研究〉檀國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81에 의하면 18세기에 역시 再音素化 表記를 보여준다: 내년호로 (京畿大綸 3b, 1782年).

호'의 激音化로 二分되는데 두 異本에서 前者는 'ㅎ'末音 翻幹이 子音과 結合되는 경우로서 表記에 반영해 주었으며 後者는 閉音節 語根 또는 語幹이 'ㅎ-' 또는 被使動接辭 '-히-'와 結合되는 경우로서 表記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 노호(木二 67a) 저천대(寫一上 24b) 박히고(木一 42b, 寫一上 32b) 홋호얏더니(木三 16a, 寫三 12b). 하지만 다음 例에서 '子晉+ㅎ'의 激音化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회시고(木차 4a) 불회시나(寫一上 6b). ⁽²⁹⁾ 따라서 再音素化 表記는 '子音+ㅎ' 激音化를 반영하지 않으려는 18세기의 表記法에 語幹 形態를 고정시키려는 意識이 結合되어 이루어진 表記原理라 할 수 있다. ⁽³⁰⁾

2. 二-口蓋音化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保守的인 表記 경향을 보임을 알려 주는 대표적인 것은 口蓋晉化에 대한 表記이다.

- (18) 여나지(木유 1b, 寫유 1b) 여러지는(木유 1b, 寫유 1b)) 어지오샤(木전 4a, 寫전 5a)
- (19) 癸耳(寫四 2a, 好) 苅(寫一下 5b)
- (20) 호가디로(木차 2a) 몬뎌(木三 1b) 꾸디즈디라(寫四 13a) 디어내여(木一 61a) 딥의(寫四 2b,家) 역적 일을(木四 4a)

두 異本이 모두 ㄷ-口蓋音化 表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빈도상으로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口蓋音化를 반영하지 않은 保守的 表記를 훨씬 더 많이 보여준다. (18),(19)에 제시된 것처럼 대체로 어느 環境에서나 口蓋音化 表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木板本은 특히 第1音節에서의 口蓋音化 表記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데 (31) 이는 木板本 表記者들의 保守的인 表記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며 (32) 第1音節에서의 口蓋音化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의 渦度矯正例가 이를 立證하여 준다.

ㄷ-口蓋晉化는 形態素 境界에서도 일어나는데 이에 대하여 筆寫本이 改新的 表記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음 例는 示唆的이다.

(21) 쯧莧(木三 6b) 묫莧는(木三 8b) 쯧치(寫三 5a) 쯧剃는(寫三 7a)

⁽²⁹⁾ 미디이니(木전 4b) 미치영도다(寫전 5a, 結). 이를 '막하고'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被使動接辭의 結合에 있어서는 '子音+ㅎ' 激音化에 대한 表記法上의 반영도 先行子音의 [Grave] 資質價値의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國語 音韻史나 音韻論的 系合構造에서 차지하는 [Grave] 資質의 位置에 대한 論議는 李秉根, 1976 〈'재정이'의 通時音韻論〉《어학》 3 全北大; 李秉根, 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義》 참조.

⁽³⁰⁾ 이를 語幹形態뿐 아니라 語尾形態도 고정시키기 위한 表記方式이라고 할 수도 있다.

⁽³¹⁾ 漢字語의 경우 두 異本 모두 第1音節에서의 口蓋音化 表記를 보여준다: 지희학 는(木-15b, 寫 -- | 12a, 知會) 당목학교(木유 1b) 장목학교(寫유 1a, 張目) 장황호(木-47a, 張皇).

⁽³²⁾ 第1音節에서의 口蓋音化 表記가 木板本에 반영된 것은 다음 정도에 불과하다: 저즈음의 (木一 25a).

(21)에서 제시된 것처럼 木板本은 非口蓋音化 방향으로, 筆寫本은 口蓋音化 방향으로 語 幹 單一化 表記를 보여준다.

3. 圖譽母音化

屠音 아래에서 母音 '으'가 '우'로 변하는 圓屠母音化에 대한 表記는 두 異本에 자주 나타난다.

- (22) 눈불을(木三 5b, 寫三 4b) 부터(木二 13a, 寫차 2b) 짓부고(木一 31b) 짓분(寫四 6b) 압품이 (寫전 3a)
- (23) 브러(木- 14a, 寫一上 11a, 間) 품으미(寫二 14a) 브리(寫전 3a, 群)
- (24) 공접 한문(寫四下 2b)
- (22)는 形態素 內部에서의 圓曆母音化 表記이며 (23)은 이에 대한 過度矯正의 例이다. 筆寫本은 (24)에서 알 수 있는바 曲用形의 形態素 境界에서 圓曆母音化 表記를 보여준다. 한 音韻規則이 形態素 內部에서 境界로 擴散되는 改新을 筆寫本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圓曆母音化 表記의 頻度數에서, 또 形態素 境界에서 圓曆母音化 表記를 보여주는 (24)의 例 에서도 알 수 있듯이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훨씬 保守的 表記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4. 기 타

18세기 國語에 語頭子音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 時期에 'ㅂ'系 並書와 '人'系 並書가 混記를 보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 두 異本에서도 그 例를 찾을 수 있다. (33)

- (25) 희여지니(木- 56b) 희여지니(木- 51a) 화하(木발 2b) 화하(木三 27a) 화디(木- 75a) 화다(木三 2b, 書)
- (26) 흐디(寫二 10a) 츳은(寫三 13b) 희여디니(寫一上 38b) 최여지디(寫一上 43a) 흐더니(寫四 1b) 쓰오니(寫차 3b, 書)
- (27) 안짜와(木四 78a, 坐) 증짜뜻은(木三 17b, 寫三 13b) 글짜물(寫四下 la)
- (25)는 木板本에서, (26)은 筆寫本에서 '出'系 並書와 '人'系 並書가 混記되는 例이다. 이로 보아 두 異本에 나타나는 語頭 並書는 모두 硬音을 나타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7)에서 보는 대로 語中의 硬音化 環境에서 '出'系 並書를 보이는 것도 같은 次元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두 異本의 並書는 모두 硬音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하퍼 18세기 文獻에서 子音群 末音 語幹들은 子音系 語尾와 결합될 때에 子音群 중에 한

⁽³³⁾ 두 異本에서 'ㅆ'을 제외하고 各自並書는 나타나지 않는다.

子音이 脫落된 表記를 보이는데(34) 두 異本도 역시 그러하다.

- (28) 업고더(木유 1a) 업고져(寫유 1a, 無) 한제(木四 12b, 寫四 10a, 坐) 홈더(木一 11a, 寫一上 9a. 移)(35)
- (29) 討と(木补 6a, 寫补 4a) 討기(木一 27b, 寫一上 21a) 盖고(木二 16a, 寫二 12a) 命曰(木四 42a) 命习(寫四 33a)
- (30) 서도다(木차 5b) 불조오시되(寫차 2a, 踏)
- (28)은 子音群 單純化가 반영된 表記이다. '리, 래'末音 語幹은 (29)에서 보는 바처럼 子音系 語尾 앞에서도 대체로 子音群이 維持되어 子音群 單純化를 겪지 않은 듯한 表記를 보이지만 (30)의 例을 통해 볼 때 한 子音을 脫落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36) (30)에서 子音群 單純化에 대한 表記方式이 두 異本이 差異를 보임은 特異하다.

用言의 語幹末 子音群 '지'은 逆行同化를 겪어 'ㄲ'으로 變化되었다.

- (31) 적 년 (木四 23b, 寫四 18b) 탁 년 (木二 69a)
- (32) 방말이(木- 40b, 寫一上 30b) 방그로브터(木- 42b, 寫一上 32a)
- (31)은 用言의, (32)는 體言의 例이다. 두 異本에서 體言의 경우 'A〉ㄲ'의 逆行同化를 반영한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37)

副詞形 語尾 '아/어'의 交替는 語幹末音節 田晉의 音韻論的인 性格과 관련이 있는데 두 異本에서 이는 閉音節 語幹의 活用에서만 엄격히 지켜졌다.

- (33) 答어(木一 75b, 寫一下 14b) 막아(木二 43b, 寫二 4a)
- (34) 되여(木- 28a) 되야(木- 29b) 다래여(惠二 18b) 다래야(寫二 32b)
- (35) 아러노라(寫四 5b)
- (33)은 閉音節의, (34)는 開音節의 '아/어' 交替를 보여주는 경우인데 특히 (34)는 동일한 開音節 語幹이 隨意的으로 '아/어'를 택하는 例이다. (35)에서처럼 筆寫本은 더욱 改新的이어서 '아/어' 交替에 있어 閉音節 語幹의 엄격함마저도 의심하게 하는 表記를 보여준다. (38)

^{(34) &#}x27;iō, tō' 末音 語幹들은 물론 'ㅎ'縮約 즉 激音化를 보인다:만하니(木三 22a) 만코(寫전 3a) 용토다(木二 41b) 올코(寫四 20b).

⁽³⁵⁾ 제시된 例들이 모두 用言에 한정된다. 體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洪允杓, 1987〈近代 國語의 語幹末子音群 表記에 대하여〉《國語學》16 참조.

⁽³⁶⁾ 사실 이와 같은 例들이 두 異本에서 극히 드물 뿐 아니라 '础'末音 語幹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좀더 慎重을 要하는 문제이다.

⁽³⁷⁾ 體言의 경우는 18세기 文獻에 공통적이다. 郭忠求, 前揭論文 pp.51~55 참조.

^{(38) &#}x27;ㄷ'變則用言인 '일론-'도 이러한 점에서 特異하다:일叉고(寫三 17a) 일코라(寫二 9b) 일코라(寫四下 18b), '일코리'는 唯一佛인데 閉音節 語幹의 '아/어' 交替에서 例外를 보이는 이들

《闡義昭鑑諺解》가 完成된 時期 즉 18세기 中葉에 움라우트는 아직 全面的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異本에서 이 움라우트를 경험한 듯이 보이는 例가 자주 발견된다.

- (36) 베히디(木- 13a, 寫一上 10b) 버히게(木발 3b) 세허(木- 4a, 寫四 3a) 세허니(木四 47b, 寫 四下 1a) 조세히(木四 51b) 조셔히(寫四下 4b) 뇌허(寫四 13b) 노허(木四 17a, 放)
- (37) 네일(木二 3b) 너일(寫二 3a, 溫)
- (38) 여여(寫二 39a) 세여(木二 54a, 貫) 고이专니(寫四下 26b) 과이专니(木四 77a)

(36)은 'ㅎ'이 介在子音일 경우이고 (37)은 介在子音이 없는 경우이며 (38)은 滑音 'l' 脫落의 例이다. ⁽³⁹⁾ 介在子音이 없는 (37)의 特殊한 경우를 제외하면 (36)은 움라우트가 그 介在子音으로 'ㅎ'을 가지는 環境에서 비롯되어 다른 環境으로 擴大되어 갔음을 暗示해준다.

Ⅳ. 飜譯樣式:直譯叫 意譯

한 原典이 두 번 이상 飜譯되었을 때 그것은 直譯과 意譯으로 나뉘기도 한다. 그런데 兩者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筆者는 兩者를, 飜譯文이 原文의 形式과 內容에 對應하는 정도의 相對性으로⁽⁴⁰⁾ 구별하려 한다. 그리하여 本章에서는 동일한 原典에 대한 두 飜譯인《闡義昭鑑證解》의 木板本과 筆寫本이 原文의 形式과 內容에 對應하는 정도가 어떠한지, 동시에 飜譯樣式이 相異한 두 異本이 보여주는 言語事實의 差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助調의 結合

두 異本은 일부 用言에 의해 支配되는 助詞의 選擇에서 差異를 보이기도 한다.

- (39) 서종하 등으로 더브러 년명 샹소호여(木- 41a, 寫一上 31a)
- (40) a. 신이 지로 더브러 혼가디로 계 드럿더니(木四 1b) b. 의신이 지와 더부러 혼가디로 계 드럿더니(寫四 1b)
- (39)에서처럼 '더브러(與)'는 助詞 '-(으)로'와 結合됨이 일반적이나 筆寫本에서는 (40)b

이 모두 'ㄹ' 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일코러'는 第2音節 이하 '?'의 消失에서 비롯된 改新形이기도 하다.

^{(39) &#}x27;প্র 고이한니'는 筆寫本에만 나타난다. 이를 同母音 重疊에 의한 母音脫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네, 시'의 單母音化는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⁴⁰⁾ 安乘福, 1973 〈中世國語 研究資料의 性格에 대한 研究〉《어학연구》 9-1 참조. 동일 原典에 대한 두 飜譯書에 대하여 直譯과 意譯이라는 飜譯樣式의 差異를 중심으로 比較・記述한 論文으로 上記論文 외에 李浩權, 1987 〈法華經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國語研究》 78; 李賢熙, 1988 〈小學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 一形態・統辭的 측면을 중심으로 —〉《한신논문》 5 등이 있다.

의 경우처럼 간혹 '-와'를 許容하기도 한다.

- (41) a. 인심이 일로 말믜아마 합닉호니(木一 37a)
 - b. 인심이 일노 말민아마 합닉호니(寫一上 28a)
- (42) a. 이글 찬즙호미 금년 역변의 말미아맛는 고로(木범 2a)
 - b. 이글 차집호오미 금년 역변의 말민아맛는 고로(寫범 2a)
- (43) a. 일변의 합니호미 전혀 광좌로 말만아맛는디라(木四 27b)
 - b. 일변의 합니호미 던히 광좌를 말만아맛노지라(寫四 21b)
- (41), (42)에서 보여주는 대로 '말미암-(由)'는 일반적으로 助詞 '-(으)로' 또는 '-의'와 結合되나 筆寫本에서는 (43)b에서처럼 때로 '-를'과 結合되기도 한다.
 - (44) a. 신튝으로브터 율회의 니른히(木발 1b)
 - b. 신튝으로브터 을히의 닐으히(寫발 1b)
 - (45) a, 무신으로브터 오늘 니른히(木三 8a)
 - b. 무신부터 오늘날 구지(寫三 6b)
 - (46) a. 머리브터 쭛マ디 니른히(木一 17a)
 - b. ス介지미司(寫一上 13b, 自首至尾)
- (44)에서 보이는바 原文 '自~至~'에 대하여 두 異本에서는 '~브터 ~니루히(닐으히)'로 呼應시켜 諺解함이 일반적이나 (45)는 筆寫本에서 '~부터 ~々디(マ디)'로 諺解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46)a는 木板本에서 '~브터 ~マ디니루히'로 諺解되었는데 이는 '~부터 니루히'에서 '~부터~々지'로 변화하는 中間的 形態로 보인다.
- (39)~(46)에서 筆寫本이 木板本보다 助詞選擇上의 變異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飜譯樣式의 相異에 따른 差異라기보다 木板本이 가지는 固定性과 筆寫本이 가지는 變異性에서 유래한 差異로 여겨진다.

2. 二重否定

두 異本 중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原文을 飜譯에 더 충실히 반영한다. 이는 漢文 原典의 '無不'型에 대하여 木板本의 諺解者가 二重否定型으로 飜譯한 데에 반하여 筆寫本의 諺解 者는 肯定型으로 飜譯하기도 하였음에서 알 수 있다.

- (47) a. 풀을 뽐내여 단당티 아니미 업고(木二 61b)
 - b. 풀을 뽐내고 담당 후야(寫二 44b)
 - c. 無不攘臂擔當
- (48) a. 쥬댱지획디 아니미 업서(木三 11a)
 - b. 쥬댱디회 호야(寫三 8b)
 - c. 無不主張指劃

- (49) a. 단통한 신해 아니미 업소되(木一 14b)
 - b. 전통하는 사람이 아니미 업소되(寫一上 11b)
 - c. 無非體國盡忠之人

(47)~(49)에서처럼 原典의 '無不'型이 木板本에서는 '~아니미 업서'의 二重否定型으로, 筆寫本에서는 二重否定型 또는 肯定型으로 翻譯된다. 筆寫本의 兩型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출험한다. 이는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더 原文에 충실한 翻譯을 한 것임을 보여준다.

3. 冠形節의 主語

冠形節 主語의 格 形態는 木板本과 筆寫本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준다.

- (50) a. 혁혁훈 메군이 보는 거시 우희 잇고(木四 51b)
 - b. 혁혁훈 폐군의 보는 거시 우희 잇고(寫四下 4b)
- (51) a. 녀천의 근심ㅎ는 눗빗초로써(木三 18b)
 - b. 녀천의 근심호는 빗초로써(寫三 14b)
- (52) (청휘문은 동궁 문안 왕너호오시는 길히라)
 - a. 샹검이 문안호오시는 길홀 막아(木二 43b)
 - b. 샹검이 문안호오시는 길흘 막고(寫二 31b)
- (50)에서 보는 대로 冠形節의 主語가 木板本에서는 主格形을,筆寫本에서는 屬格形을 주로 취하며 간혹 (51)과 같이 木板本에서 屬格形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木板本이 오히려筆寫本보다 改新的 形態를 보인다는 점에서 特異하다. (52)는 두 異本에서 冠形節의 主語가 主格形을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상검이'는 冠形節의 主語가 아니라 上位文의 敍述語 '막-'의 主語이다.

4. 轉移語

前後의 文脈을 분명하게 하여 주는 單語를 轉移語라고⁽⁴¹⁾ 한다. 이 轉移語의 출현에서 두 異本이 差異를 보인다.

- (53) a. 명을 빗조을 형세 업조오매 시리금 마디 못한야 감히 위고한은 소상을 베프러(木一 21a) b. 명을 빗조을 형세 업조오매 시리금 마디 못한야 감히 위고한은 소상을 베퍼(寫一上 16a)
 - c. 無承命之勢不得不耶陳危苦之狀
- (54) a. 됴야로 호여곰 시러곰 아디 못한게 한니(木二 7a)
 - b. 됴야로 ㅎ여곰 아디 못ㅎ게 ㅎ니(寫二 5b)
 - c. 使朝野不得知
- (53), (54)에 나타나는 '시러곰'은 轉移語라 할 수 있지만 이는 漢文 原文 '得'에 대한 飜
- (41) 安秉禧, 前揭論文, p.80 补圣.

譯借用이며 狀況이 바뀌는 關係를 밝혀 주는 轉移語는 아니다. (42) 木板本에서는 이러한 飜譯借用의 경우를 흔히 보이는데 이는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더 原典을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더 逐字譯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43)

飜譯借用이나 前述한 二重否定型에 있어서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더 逐字譯의 性格을 지 니고 있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木板本이 筆寫本보다 더 直譯體인 것은 아니다. 다음의 例를 보자.

- (55) a. 계지마황당이 효험이 업스면 장춧 엇디 호랴 호닉뇨 호오시다 (木二 6a)
 - b. 계지마황탕이 종시 효험이 업수면 엇디 貢라 호노뇨(寫二 4b)
 - c. 桂枝麻黄湯無效將如之何
- (56) (혹재 조오터)
 - a. 네로브터 난역이 니러나매 오딕 듀학고 극호 佟룹이니 엇디 글을 뜨리오 향겨눌(木차 4a) b. 네로부터 난역이 니러나매 오직 쥬극호 佟롭이니 엇지 글을 써 한리오 (寫차 2d)
 - (신등이 되답호야 골오되)
 - c. 或者曰自古亂逆之起惟誅之殛之而已安用書爲敖臣等答曰
- (55), (56)의 '호오시다, 호거들'은 漢文 原文에는 보이지 않는데 木板本에서 話法이나 狀況變化의 表示를 위하여 덧붙여 준 轉移語이다. 이는 翻譯借用이 아닌 轉移語로서 直譯보다는 意譯에서 나타난다. 이로 보아 木板本은 筆寫本보다 意譯의 性格을 더 많이 지니면서도 동시에 原典을 重視한 逐字譯의 方式에 따라 翻譯한 證解書라 할 수 있다.

5. 語句飜譯叫 語彙選擇

漢文 原文의 語句를 筆寫本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데에 반하여 木板本에서는 이를 固有語로 풀어 飜譯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57) a. 스스로 목미야 죽고(木四 23a) b. 주익ぐす고(寫四 18a, 自縊死)
- 간흑 반대의 경우도 나타난다.
 - (58) a. ^ス유기시라 한더니(木유 3b, 自有其時) b. 스스로 그째 이시리라 한다가(寫유 3a)

하지만 두 異本에서 이처럼 漢文 原文의 語句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흔하지 않고 오혀

⁽⁴²⁾ 上揭論文, p.80 참조.

⁽⁴³⁾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같은 유형의 飜譯借用으로서 '以'는 筆寫本에서 더 자주 출현한다:대략을 아리 됴릴호야 써 찬슈호는 신하의게 부치노라 (寫유 lb) 대략을 아리 됴릴호야 찬 슈호는 신하의게 부디노라(木유 lb) 條列大略于下 以付纂修之臣、

려 몇개 語彙로 풀어 翻譯하는 경향이 흔한데 木板本에서는 固有語로, 筆寫本에서는 漢字 語로 풀어 翻譯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 (59) a. 새 옴기고 일이 가(木차 4b)
 - b. 시이(時移)학교 소왕(事徃)학야(寫차 3a)
- (60) a. 선됴로브터 뜻을 일흐매(木견 3a)
 - b. 선됴로브터 실지(失志) 후야 (寫전 3a)
-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 (61) a. 원국호야(木三 20b, 怨國)
 - b. 나라홀 원망호여 (寫三 16a)

이처럼 漢文 原文의 語句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直譯體의 특징인데 筆寫本이 木板本보다 더 直譯體에 가까움을 나타내 준다. 이는 漢字語의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4)

(62) 봇처내여(木전 3b) :고선호야(寫전 4a, 鼓燭)

긔이기(木- 19b) : 취학기 (寫一上 15a, 諱)

디난밤(木一 36b) : 거야 (寫一上 27b, 去夜)

갈니이미(木二 40a) :기이호미(寫二 28b, 歧貳)

하늘의 다호(木三 2a): 도턴호(寫三 1b, 稻天)

스므刺롤(木四 2a) :이십년울(寫四 1b)

작은(木四 58a) : 수착호 (寫四下 10a, 搜捉)

木板本에서는 固有語로, 筆寫本에서는 漢字語로 飜譯되는 경향이 우세하다. 역시 直譯體에 가까운 筆寫本에서 漢字語의 比律이 높다. 물론 다음의 例처럼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보이며 두 경우가 같은 語句 안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보인다.

(63) 오일(木유 3a) : 닷서(寫유 2b)

서 혹동의(木三 20a, 西學洞): 서 혹골(寫三 15a)

야회(木四 22b, 夜會) : 밤못고지(寫四 17b)

- (64) a. 모음이 통운학고 (心隕) 목이 메이여(木유 1b)
 - b. 모음이 여러지는 돗호고 오열(嗚咽)호지라 (寫유 1b)

요약컨대, 筆寫本은 助詞結合의 多樣性을 보인다는 점에서 變異性을 가지는 데에 반하여 木板本은 固定性을 가지며 또한 二重否定이나 翻譯借用의 轉移語의 존재에 의해 逐字的 翻譯의 性格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리고 筆寫本은 木板本보다 漢文 原文의 語句를 그대로 사

^{(44) (60),(61)}의 例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경향의 差異가 漢文 原文의 構成과는 無關한 듯하다. 한 편 두 異本이 選好하는 漢字語가 있다: 다만 동요의 어핍호은 거손(木유 la, 語遍) 다만 말이 동요의 집혼 샤는(寫유 la) 의리 장춧 나타나고(木는 lb) 의리 장춧 천명호고(寫는 la, 闌). '어 핍호-'는 木板本에만 보이는 漢字語이다 '천명호-'는 筆寫本에 빈번하게 출현하며 木板本에는 극히 드문 漢字語이다 : 천명호는 (木전 7b).

용하거나 漢字語로 풀어 쓰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나 漢字語를 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木板本보다 直譯體에 가깝다고 하겠다.

Ⅴ. 맺음말

이제까지 記述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結論을 대신한다.

- 1. 《**國義**昭鑑諺解》는 木板本과 筆寫本 두 종류가 있는바 承政院日記의 記錄을 토대로 살펴보아 筆寫本은 英祖 31年(1755) 12月에 元景夏, 申晚 兩人에 의하여 纂修되었으며 木板本은 이를 바탕으로 徐命膺, 鄭存謙에 의하여 英祖 32年(1756) 7月에 纂修, 刊印된 것이라하였다.
- 2. 두 異本은 終聲의 表記에서 差異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語幹え	卡音		[+s	on.]	[—son.]									
上							[+asp.]					[-asp.]					
形態 論的	表	記方						[-	gra	ve]	[-g	rave]	[+gı	rave]		gra	ve]
4	商疇 \	() () ()		п	٥	L.	콘	32.	7	ठें	E	六	н	7	ᄄ	人	ズ
W. Marine		分	綴	+	-1-	+	+	B _i "	B _i "	B ₁ "	B ₁ "	$B_{1}^{\prime\prime}$	+	+	+	B _I "	B ₁ "
		連	綴	B'	A_3	B'	B'	B'	B'	+	B'	B'	B'	B'	B'	+	В
體	言	重	綴	B'	A_3	B'	(+)	B'	B'	$B_2^{\prime\prime}$	+	+	B'	B'	(+)	(+)	$\mathbf{B'}$
		再音	素化	A ₁	A_1	A_1	A ₁	+	В	A_1	(+)	B'	A_1	A_1	A ₁	A_1	A_1
****	ALLEGE SPECIFICATION	分	綴	⊕	A_2	В	+	B _t "	B _i "	B ₁ "	B ₁ "	B ₁ "	⊕	⊕	B'	B ₁ "	B ₁ "
		連	綴	+	A_2	B'	+	+	A_2	+	+	+	+	4-	+	+	+
用	育	重	綴	B'	A_2	$\mathbf{B'}$	B'	B′	A_2	$B_2^{\prime\prime}$	⊕	\oplus	B'	B'	B'	B'	B'
		再音;	素化	A_1	A_1	A_1	A_1	⊕	A_2	A_1	B'	В′	Ai	A_1	A ₁	A_1	A_i

위 도표에서 '+'는 그 環境에서 출현하는 경우이고 ①는 우세함을 나타내며 (+)는 筆寫本에서만 출현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A는 體系的인 공백이며 B,B',B''는 偶然的 공백인 데 각각 優勢하면서 출현하지 않는 경우, 優勢하지 않지만 출현할 수 있는 경우, 18세기 文獻에서 결코 출현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A₁은 'ㅎ'이나 [-asp.] 子音의 再音素化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A₂는 그러한 語彙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A₃은 'ㅇ[D]'이 初 聲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공백이다. B₁''은 七終聲法에 의하여 18세기 段階에서는 分綴이 불가능한 경우이고 B₂''는 'ㅎ'의 重綴이 불가능한 데에서 비롯된 공백이다. 위 표에 의하면 分綴과 가장 對蹠的인 位置에 서 있는 것은 再音素化 表記인바 이는 現代的 意味의 形態音素的 原理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示唆해 준다. ⁽⁴⁵⁾ (Ⅱ章 1節 참조)

- 3. ㄷ-口蓋音化 表記나 圓層母音化 表記에서 木板本은 빈도상으로 그리고 出現環境上으로 筆寫本에 비해 保守的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Ⅲ章 2節, 3節 참조)
- 4. 두 異本에서 副詞形 語尾 '아/어'의 交替는 閉音節 語幹의 活用에서만 엄격히 지켜지는데 筆寫本은 이 엄격성마저도 의심스럽게 하는 例를 보여준다. 이는 筆寫本이 木板本보다 改新的 表記를 보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Ⅲ章 4節 참조)
- 5. 筆寫本이 助詞結合의 多樣性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木板本과 달리 變異性을 지닌다고 하였으나 冠形節 主語의 格 形態는 筆寫本이 오히려 木板本보다 固定的인 保守的 表記를 보인다고 하였다. (V章 1節, 3節 참조)
- 6. 飜譯樣式에 있어서 轉移語의 使用, 漢文 語句나 漢字語의 使用頻度에 근거하여 木板本은 意譯體, 筆寫本은 直譯體라 하였다. (N章 4節, 5節 참조)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지적해 보았으며 '시리곰'과 같은 飜譯借用이나 二重否定의 사용에서 木板本이 意譯體 이면서도 漢文 原典에 충실하려는 逐字譯의 性格을 지닌다고 하였다. (N章 2節, 4節 참조)

^{(45) &#}x27;ㅎ'의 重綴이 이루어진다면 'ゟ'의 表記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하면 'ㅌ'의 再音素化 表記 'ゟ'과 구별이 불가능해진다.